2022년 8월 10일 | 미국

보잉(BA.US)

투자선호도	최근 종가(USD)	블룸버그 목표가(USD)	Analyst 김재임, RA 김태화
★★★★☆	165.89	215.58	02-3771-7793 / 02-3771-7694

| 미국 연방항공국, 787 Dreamliner 인도 재개 승인

미국 연방항공국, 787 Dreamliner 인도 재개 승인

- 8일 미국 연방항공국(FAA)이 보잉이 제출한 수리 검증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787 인도가 가능해짐
- 작년 5월 인도가 중단된 이후 1년 3개월 만의 인도 재개. 보잉은 올해 1월 787 인도 지연 관련 고객사 보상금 및 수리/점검 비용 총 55억 달러가 발생하였다고 발표
- 첫 항공기 인도는 아메리칸항공 대상 2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르면 이번 주 수요일 인도되어 수주 내 영업에 투입될 예정. 이외에도 아메리칸항공은 총 42기를 발주한 상태로, 7월 실적발표에서 올해 총 9기를 인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
- 아메리칸항공을 제외한 미국 대형 항공사 수주 비중은 높지 않으며 중동, 유럽계 항공사 고객 비중이 높음
- 월가에서는 인도 재개 이후 보잉이 올해 중으로 787 약 85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

787 인도 재개는 실적 불확실성 해소와 재무 건전성 개선 측면에서 긍정적

- 현재 787 재고는 120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며 시장에서는 재고 판매를 통해 약 170억 달러의 매출 예상하고 있음
- 2분기 기준 787 수주 잔고는 407기로 전체 수주 잔고에서 787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%. 재고를 훨씬 웃도는 수준임을 감안할 때 월 생산 목표량 5기 기준으로 수년 동안 보잉 매출액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
- 인도 시점에 대부분의 현금을 회수하는 항공기 제조업 특성 상 787 인도 재개는 실적 불확실성 해소뿐만 아니라 재무 건전성 개선 측면에서도 긍정적. 인도 중지 이전 보잉은 매월 약 10~15기의 787을 인도해 왔음
- 다만 충분한 트랙 레코드가 쌓일 때까지 FAA가 당분간 모든 인도 대상 항공기에 대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고 감항성 인증을 수여할 계획임에 따라 재고 물량 해소 및 생산 캐파 확장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.

737 Max의 선전과 맞물려 인도 및 수주 속도에 탄력 받을 것

- 상반기 보잉 상업용 항공기 총 216기 인도(+38% yoy), 6월 총 51기 인도(+13%)
- 787 부재에도 7월 Farnborough 에어쇼에서 737 Max 300기 이상 대량 수주하며 에어버스 맹추격. 지난 2년 간 787 사업 기여도가 저조했던 점을 고려할 때 787 복귀로 인도와 수주 모두 탄력을 받을 것
- 787 인도 재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며 최근 2개월 동안 가파르게 주가 상승했음을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박스권 움직임 가능성이 커 보이나 향후 본격적인 인도 재개는 FCF 개선 기대감을 높인다는 점에서 상승 요인으로 판단.

표 1. 보잉 상업용 항공기 인도 실적

	737	747	767	777	Business Jet	합계
22년 6월	44	0	4	3	0	51
YoY						13%
22년 YTD	188	3	12	12	1	216
YoY						38%

자료: 보잉, 하나증권

표 2. 보잉 상업용 항공기 수주 실적

	737	747	767	777	787	합계
22년 6월						
Gross order	49	0	0	1	0	50
YoY						-77%
Net order	20	0	0	1	-6	15
22년 YTD						
Gross order	233	0	0	46	7	286
YoY						-52%
Net order	152	0	0	46	-12	186

자료: 보잉, 하나증권

Compliance Notice
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)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았으며,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 하게 작성하였습니다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2022년 8월 10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%이상 보유 하고 있지 않습니다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(김재임)는 2022년 8월 10일 현재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
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.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